

건강 칼럼

국내 3대 사망원인 암·심장질환·그리고 ‘이것’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암(악성신생물)과 심장질환, 그리고 폐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렴은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질환이다. 폐렴으로 입원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률은 6명 중 1명 정도로 매우 높으며, 중환자실로 입원해야 하는 중증 폐렴은 사망률이 35~50%에 이른다. △고령층의 폐렴, 단순 노화와 혼동하기도

폐렴은 단순 감기나 기관지염과는 다르다. 먼저 감기나 기관지염은 상기도 혹은 하기도에 가벼운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대개는 증상이 가볍고, 대증치료를 하거나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혹은 곰팡이 등의 병원체가 폐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감기나 기관지염보다 증상이 더 심하고 항생제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며, 심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소아와 청소년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이후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흔하고, 치료도 비교적 빠르게 반응한다. 고령으로 갈수록 세균성 폐렴, 내성균에 의한 폐렴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고, 치료가 늦어지면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폐렴의 증상은 대부분 감기와 비슷하게 기침, 가래, 발열로 시작한다. 하지만 감기와 다르게 이들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거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 설사, 두통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전형적인 증상



류 호 준

대전율지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열이나 기침이 거의 없고, 대신 식욕 저하나 전신 쇠약감만으로 나타나는 폐렴도 흔하다. 이 때문에 단순한 노화와 혼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라면 감기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보다 △식욕이 저하되거나 △가래가 쇠약해지거나 △의식이 둔해지는 경우라면 폐렴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가진 상태로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기력 및 식욕 저하 정도의 증상이 있어 가정에서 지켜만 보다가 병원을 찾았을 때 뒤늦게 폐렴을 진단받은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또 보호자들이 후회를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두에 돌 부분이다. △ 관찰어진 것 같은데 항생제 줬다간...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성 폐렴의 치료법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바이러스성 폐렴은 원인 바이러스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액 공급, 해열제, 산소 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중심이 된다.

단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바이러스 감염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 세균성 폐렴은 세균이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기본이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처음부터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을 완전히 구분하기 어려운 때가 많고 두 감염이 함께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며,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을 조정한다.

폐렴의 항생제 치료 기간은 환자의 상태와 원인균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경증의 지역사회획득 폐렴(CAP) 환자는 최소 5일 이상의 항생제 치료가 권장된다. 그러나 중증 폐렴이나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또는 기존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2주 이상, 말게는 수개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항생제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증상이 나아졌더라도 세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수 있고 중간에 약을 끊으면 내성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렴은 회복되더라도 폐 조직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마른기침이나 피로감이 약 2개월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이는 열증 후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기침이 다시 심해진다거나 △2개월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거나 △열이 다시 나면 2차 감염이나 후유증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폐렴 예방백신, 누가 언제 맞을 게 좋을까?

폐렴 예방백신은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과 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 심폐질환, 당뇨, 간·신장 질환자,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 자는 반드시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10월 1일부터 생후 2개월 이상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PCV20 폐렴구균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일환으로 폐렴구균 백신(IPSV23)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 성인의 경우라면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65세 미만이라도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조기에 접종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

백신의 종류와 접종 방법을 개개인 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렇게 예방접종을 적절히 시행하면 중증 폐렴과 관련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교통사고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인터넷과 SNS로 답답자를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유인·알선 등 혐의로 18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총책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 4월까지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2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측 과실 비율을 높여 합의금을 쉽게 받기 위해, 차선을 바꾸거나 교통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부딪치는 수법도 동원했다. 이 같은 범행은 서울과 인천, 경기 포천, 충남 천안 등에서 이뤄졌다. 총책들은 이 같은 ‘조작 사고’를 내기 위해 지인을 동원

하는 건 물론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답답자를 구하기도 했다.

총책과 가담자는 인터넷·SNS로 대화하면서 ‘ㄱㄱ’(공격·가해 차량) ‘ㅅㅅ’(수비·피해 차량) ‘ㄷㄱ’(뒷쿵·후미추돌)과 같은 은어를 쓰거나, 대화방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으면 총책이 50~80%를 챙겼고, 가담자들은 남은 돈을 받아 주로 도박이나 유흥 등에 쓴 거로 조사됐다. 경찰은 입건된 가담자 가운데 경찰청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도 3명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유인·알선·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고액 알바 등의 광고 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김희갑 음악 인생

작곡가 김희갑은 1936년 평양에서 태어나 1·4 후퇴 때 대구로 내려왔다. 전학출을 벗기면 나오는 쇠썰로 기타 연습을 하던 고등학생 때부터 주한 미8군 사령부에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김희갑을 비롯해 가수 신중현, 작곡가 김육운·이봉조 등 1950년대 ‘미8군’에서 활약한 이들은 1960년대 대중음악의 대표 주자가 됐다. 영화는 김희갑이 작곡한 3000여 곡 중 35곡을 엄선한다. 1960년대 록과 1970년대 포크와 발라드 등 ‘시대에 맞는 음악’을 두루 해냈다.

키보이스 ‘바닷가의 추억’(1969), 송창식 ‘산야의 노래’(1983), 조용필 ‘그 겨울의 찻집’(1985), 김국환 ‘타타타’(1992) 등 음악의 뒷이야기가 무대 영상, 김희갑의 기타 연

주 등과 교차한다. 영원한 파르너, 배우자이자 작사가인 양인자(80)를 만나게 된 건 80년대의 일이다. 두 사람은 TV 드라마 작가였던 양인자에게 김희갑이 드라마 삽입곡 작사를 의뢰하며 처음 만났다.

양인자는 서울 정동 MBC 앞다방에서 소년처럼 앉아있던 김희갑을 떠올린다. 해운이 ‘열정’(1985)에 이어 이선희 ‘알고 싶어요’(1986) 작업을 할 때, 김희갑은 “뭔가 소름나는 느낌”을 느꼈다고 했다. 둘은 1987년 7월 결혼했다. 가수와 평론가들은 ‘김희갑 작곡, 양인자 작사’ 곡의 탁월함을 말한다.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한 400여 곡 중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형식적 독창성과 대중적 인기를 모두 끌었다. 정지용 시인의 ‘항수’도 김희갑의 작품이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독자제언

최근 보이스피싱(스미싱) 수법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저급리 대출을 해준 다음 접근한 뒤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대출 상환형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최근 몇 년 사이 ‘택배 배송’, ‘카드 발송’ 사칭 등이 등장하며 수법이 다변화되고 정교화된 것이다. 이러한 사칭 범죄(스미싱) 수법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카드 배송’ 사칭 수법이다. 피싱법은 우체국이나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여 ‘카드가 배송될 예정이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는 해당 연락처를 통해 연락하거나 링크를 접속하게 되고, 그 과정

카드, 택배 배송 사칭 스미싱에 주의하세요

에서 원격 제어 및 악성 앱을 설치된다. 이후 경찰·금융원을 사칭한 정교한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금 이체를 유도한다.

“택배 회사” 사칭 수법도 있다. “택배 배송지연, 배송지확인” 등과 같은 내용을 보내고 문자 확인을 위하여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이다. 경찰청 민원24를 사칭하여 허위의 ‘위반자실종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만들어 URL 고지서를 열람하고 개인정보

를 탈취하는 수법 또한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법에 속아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한 뒤 해당 카드사, 택배 회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문자 메시지 및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금융원·경찰 등 국가기관은 절대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니

사기범에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경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속게 만들도록 설계된 범죄라고 한다. 택배 문자나 카드 배송 알림처럼 그럴 듯한 일상 메시지 속에서 피해자가 속기 쉽기 때문에 윤곽을 포착하기 더 어렵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금만 의심하고, 한번만 확인하면 막을 수 있는 범죄기도 하다. 일상생활에서 의심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가져 피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 최인근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